

# 독감과 독감백신에 대한 오해와 진실



독감은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급성 호흡기 질환을 말하며 코나 목, 폐 등으로 침범한 바이러스에 의해 갑작스런 고열, 두통, 근육통, 전신 쇠약감과 같은 전반적인 신체 증상을 동반한다. 이러한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사람들은 '독감백신', 즉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월부터 12월경에 1,500만명분이 시중에 유통된다. 독감(인플루엔자)과 독감백신(이하 인플루엔자백신)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.



오상연  
생물제제과

## 독감은 심각한 질병이 아니다?

인플루엔자는 전염성이 높고, 생명을 위협할 만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. 젊고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이러한 질병상태에서 완전하게 회복하려면 2주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. 전 세계적으로 매년 3백만~5백만명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중증의 질환을 경험하고 있으며, 그중 25만~50만명이 사망에 이르고 있다. 이들 사망자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의 65세 이상 고령자들이기는 하나, 선진국에서는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웃돌고 있기도 하다.

### 인플루엔자백신을 맞으면 독감에 걸린다?

국내에 허가되어 사용되고 있는 인플루엔자백신은 바이러스를 완전히 불활화(inactivation)하여 만들어지거나, 병원성이 없도록 약독화(attenuation)시켜 만들어지는 백신으로 백신 접종으로 인해 독감에 걸리지는 않는다.

### 건강한 사람은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?

건강상태가 양호하다 할지라도 누구나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수 있으며, 이를 예방하려면 백신을 맞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 중의 하나이다. 특히 **고위험군**에서는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해 심각한 합병증이 유발될 수도 있으며, 심한 경우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.

### 인플루엔자백신은 효과가 없다?

인플루엔자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의 예방효과(seroprotection)는 80% 이상이었으며, 백신의 접종은 폐렴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감소시키고, 인플루엔자로 인한 고령자의 사망률이 낮아지는 것이 임상시험을 통해 증명되었다.

### 인플루엔자백신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?

인플루엔자백신은 안전성이 매우 높은 백신 중의 하나이다. 심각한 부작용은 매우

#### ※ 고위험군

- 만성 심혈관계 또는 호흡기계(폐) 질환자
-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치료, 요양, 수용 중인 사람
- 병원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: 대사질환(당뇨병 등)자, 신장질환자, 만성간질환자, 악성 종양자, 면역저하 환자, 혈액소병증(hemoglobinopathy) 환자
- 고령자 및 영아



### ※ 인플루엔자백신의 '사용상 주의사항'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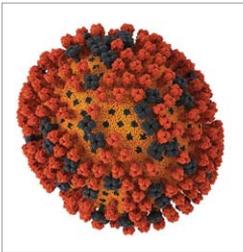
####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

- 계란, 닭고기 및 그 외의 닭 유래성분 또는 이 백신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자

드물게 나타나며,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의 대부분은 접종 부위가 다소 발적되거나 부어오르는 정도이다. 계란 성분 등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백신 접종 후 알레르기 반응이 동반될 수 있으나, 이 또한 아주 드물며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백신의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.

### 인플루엔자백신을 매년 맞을 필요는 없다?

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매년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, 실제로 거의 매년 조금씩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. 이러한 변화에 따라 해마다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으며, 또한 인플루엔자백신의 면역원성은 6개월 정도인 사유로 해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백신을 맞는 것이 필요하다.



인플루엔자 바이러스

이제 곧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다가오는 계절이다. 백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통해 올바른 접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. 